

## 경기도 축산물 차별화로 소비자 공략

- G마크 제도 활성화 기대 -

**본**고는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각 도·시·군 등 지자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축산관련 기관을 찾아 릴레이 형식으로 탐방을 통해 지자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달은 경기도청의 축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상교 축산과장을 만나 경기도 활동상황 및 양계정책 방안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

### 양계사업 전국 1위 경기도

국토의 약 10%(10,184km<sup>2</sup>)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27개 시와 4개 군으로 나뉘어 광활한 대지를 자랑하는 만큼 축산물 생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내 축산물의 1/5이상이 경기도에서 생산되면서 특히 양계, 돼지, 젓소 부문에서 전국 1위의 사육현황을 자랑하고, 농가지원 및 정책을

통해 축산발전 기여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 양계산업 규모는 804농가(산란계 402, 육계 332, 종계 70)가 총 3,092만수(산란 1,673만수, 육계 1,283만수, 종계 136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21.5%를 차지하면서 1위를 자랑한다. 호당 사육수수는 38,463수로 과거에 비해 전업농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 축산과 서상교 팀장

### 25년간 수의·축산 업무

서상교 과장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84년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으로 경기도 축정,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장, 최근까지 경기도 축산과에서 축산물위생을 맡아왔다. 축산물 품질



▲ 경기도청 전경

향상과 원활한 유통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에 기여해온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선도적 수행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그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일조하면서 금년 1월 3일자로 경기도 신임 축산과장으로 부임해 경기도 축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축산물위생팀에서 위생·방역·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뤘고 특히, 지난해 큰 피해를 가져온 HPAI의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 매주 수요일은 '소독의 날'로 지정해 방역관리 뿐 아니라 철저한 차단방역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 방역·질병예방 활동에 적극 지원

경기도 축산과에서는 소독시설을 위해 설치금액이 작년 한해 13억원(269개소), 뉴캐슬 예방을 위해 12억원(3억1천만수분)을 양계농가 대상으로 지원했다. 특히 도 특제사업으로 3~4년 전부터 감보로병 예방약을 작년 9억 3천만원(84,552천수분), 금년 9억 5천만원(120,506천수분) 지원하면서 꾸준히 높은 생산성으로 안정적인 축산운영을 위해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1. 경기도 가축방역분야 지원내역

구 분	2008년	2009년
소독시설 설치지원	290개소, 14억원	269개소 13억원
소독약품비 공급	11억2천만원	5억원
뉴캐슬병 부화장	7억6천만원(181,594천수분)	5억5천만원(184,190천수분)
뉴캐슬병 농가	5억3천만원(131,725천수분)	4억4천만원(147,750천수분)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 공급	1억원(1,064천수분)	1억2천만원(1,240천수분)
감보로병 예방약	9억3천만원(84,552천수분)	9억5천만원(120,506천수분)
ND, 저병원성 시	1억8천만원(3,553천수분)	9억1천만원(15,632천수분)
소독약품 비축	3억6천만원(14톤)	-



▲ 경기도 축산과는 서상교 팀장(좌측 두번째)을 중심으로 왼쪽부터 축산정책(사무관 허섭), 동물방역(사무관 임병규), 축산경영(사무관 백한승). 그의 축산물위생(사무관 김성식), 친환경축산(사무관 송춘섭), 애그로파크(사무관 류희영) 등 총 6개 부서로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부분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 및 예찰활동을 위해 ‘공동방재단’을 구성해 110개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별로 방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축종별 전문 수의사, 지역별 전문가, 컨설턴트, 지역별 축산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를 설치해 분기별 개최를 통해 사전 예찰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 경기축산물, G 마크

항생물질 잔류가 없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는 G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Guarantee, Good, Gold’의 이니셜을 딴 G마크는 위생적으로 철저히 생산되는 농가는 물론 도계장, 가공공장, 판매점까지 모두 조사를 통해 엄선된 1등급 이상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특히 G+마크는 G마크 참여 농가 중 엄선된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부여되어 명품 경기축산물을 상징한다. 경기도에서 생산하

는 축산농가 중 육계는 이미 경기도 축산물 생산량의 50%가 G마크가 찍혀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G마크 축산물이 경기도 관내 792개 교에 5,169톤(소, 돼지, 닭고기)을 급식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차액 10,450백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어 높은 등급의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는 물론 농가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욕구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G+ meat farm 육성에 2,975백만원 지원으로 G+ 포장재 개발, 항생물질 검사를 통해 농가를 육성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청정육 생산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전한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축산물 G마크에 집중해 ‘G마크 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분당지역에 판매점, 음식점, 전시관까지 갖춘 맞춤형 전문 대형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경기도 G마크 브랜드를 알려 국내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방침을 밝힌다.

##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미관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생물제제를 이용해 악취를 감소하고, 농장 외경에 농장 내외부 조경수 식재, 화단, 석축 등 조경사업이 주된 내용이다.

금년 선정기준은 축산업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15개 시군 80농가를 대상으로 800백만원(10백만원/개소당)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중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115개 농장(전축종 포함)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80개 농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앞으로 방향

경기도는 앞으로 품질고급화와 양축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된 축사시설의 신·개축과 개·보수 시설 자금을 지원해 축산전문경영체(계열화업체) 중심의 일관경영으로 계열농가 경영부담 절감, 지역특화(품목)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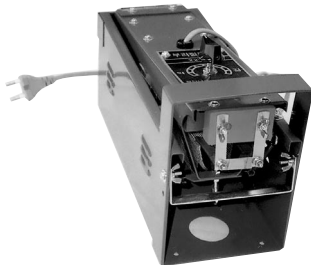
성으로 특화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새로운 소비기반 조성에 나선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경기도 G마크 브랜드 축산물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해 그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주는 '차액보조금' 제에 10,4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G마크 브랜드는 1등급 이상의 소·돼지·닭고기로 도내 초·중·고 직영 급식학교 1,830개교 중 희망학교인 1,194개교를 대상으로 1,260천명에 대해 공급되면서 축산물 소비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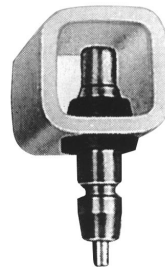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 보령산업

전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0-8934-6887